

서양인 부츠(J.L.Boots)가 본 1900년대의 한국음악*

Korean Music from the View of Westerner, J.L.Boots in 1900s

정 경 란(한국학중앙연구원)

차 례

- I. 서론
- II. J.L.Boots 소개
- III. J.L.Boots가 본 한국음악사
- IV. J.L.Boots가 본 한국악기
- V. 결론

■ keyword : 근대 | 서양인 | 외국인 | 한국음악 | 한국악기 | 피아노 | 부츠 |

I. 서론

J.L.Boots는 1940년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영어로 「한국의 악기 및 음악 소개(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논문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저널(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집필하여 한국의 전통악기와 음악을 세계에 소개하였다.[1] 물론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음악과 악기에 관한 사진, 내용들을 수록한 책자들은 있었으나, 영어로 고조선부터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는 한국음악의 역사 및 악기를 소개한 서양인은 처음이었다. 또한 이 논문은 현재까지도 한국 음악계에 소개된 적이 없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츠(J.L.Boots)의 논문을 소개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의 집필자 부츠(J.L.Boots)는 1918년 미국 피츠버그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21년 3월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으며, 1921년부터 1939년까지 세브란스 치과과장직을 맡으면서, 서양인 최초로 한국의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 논문은 1940년에 발표되었으나, 부츠가 1939년 미국 기독교 연합선교부의 명에 따라 북경으로 전임한 후 1943년까지 일본군에 의한 전쟁포로자(Prisoner of War)로서 억류당했으므로, 이 논문 집필 시기는 부츠가 북경으로 전임하기 전인 1939년이라고 하겠다.[2] 또한 한국의 전통 무기와 갑옷을 다룬 「Korean

weapons and armor」[3] 논문도 집필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렸는데, 이처럼 부츠는 한국의 전통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을 통해서 서양인 부츠가 본 한국의 음악이 무엇인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 J.L.Boots 소개

J.L.Boots[4]는 1894년 11월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뉴브링턴에서 출생했다. 1914년 제네바 대학(Geneva College)에 입학했으며, 다음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로 이주했다. 1917년 12월 24일에 결혼했고 다음해인 1918년 피츠버어그 치과대학(Pittsburgh Dental School)을 졸업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 미국 육군에 입대했으며, 1921년 3월 북장로교 선교치과의사로 한국에 왔다. 부츠가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 왔을 때는 시설이 매우 빈약했다. 그는 늘어나고 있는 치과환자를 치료하고, 선교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 ‘치과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했다. 부츠는 1925년 12월 건물 신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며, 미국 선교본부와 미국치과의사협회 승인 아래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애심을 호소하고, 치과의사들에게는 10달러짜리 ‘벽돌 만개 팔기’라는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금 8000달러와 2000달러 이상을 약속 받았다. 옛 세브란스 병원의 3층 치과건물은 1929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AKSR2014-C11)로 수행된 연구임

착공하여 1931년 10월 28일에 건평 130평으로 지어졌다. 부츠는 1939년 미국 기독교 연합선교부의 명에 따라 북경으로 전입한 후 1943년까지 일본군에 의한 전쟁포로자(Prisoner of War)로서 억류당했다. 1943년 미국으로 귀국하여 1952년까지 파사데나(Pasadena)에서, 1952년부터 1962년까지는 샌디에고(San Diego)에서 치과를 개업하였고, 1962년부터 플로리다주(州)의 클리어워터(Clearwater)에서 은퇴생활을 하였다. 한편 그는 1970년부터 모교의 외래교수로서도 활동하다가 1983년 1월 28일 만 89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연세대학교치과대학 동창회에서 만든 Boots의 흉상(胸像)은 1985년 5월 10일에 치과대학병원에 설치됐다. Boots는 굉장한 대머리이며 불과 턱에 수염이 아주 많았다. 성격은 외향성이고 구강외과 분야에 능숙했으며, 취미로 사냥과 보트 타기를 즐겼다.[5]

Ⅲ. J.L.Boots가 본 한국음악사

J.L.Boots가 내한한 1921년부터 1939년의 한국 상황은 일제식민지 시대로 조선 5백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악원(樂院)은 위축일로(萎縮一路) 파국(破局)에 직면하였고,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면서 원구(圓丘), 사직(社稷), 선농(先農), 선잠(先蠶), 문선왕묘(文宣王廟), 종묘(宗廟) 제례 등의 전통적인 국가적인 제반 의식이 폐지됨으로서 이를 연주하는 악사의 수가 대폭 줄고, 전통음악이 인멸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서양음악은 19세기 말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르친 찬송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특히 서양식 군악대의 창설로 에케르트 지도하의 한국의 양식 군악대는 군의 의식은 물론 정부의 각종 의식에서 음악을 담당하였고, 서양의 군악 및 국가, 국민가요, 서구의 행진곡 등 서양음악이 급속도로 전파되기에 이르렀다.[6]

부츠는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에서 갑자기 도입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음악으로 인해 전통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우 전통음악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집대성하고 기록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음악은 그 민족의 마음과 같고, 음악을 모르면 그 민족을 진정으로 알 수 없으며, 중국과 한국은 일찍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와 섞여 있어 고대 중국 문화에 관한 거의 모든 기록이 한국문화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의 5음, 12음, 수학, 철학, 5가지 요소(나무, 불, 흙, 금속, 물), 4계절, 12달, 12년 주기와 관련한 이론, 음악이론이 모두 혼합되어 있고, 이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부츠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의 음악이 초기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음악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러한 음악이 갑자기 도입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음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경우 누구든 그 고대 음악에 관해 확보 가능한 모든 지식을 수집 및 집대성하고 기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 음악에 대해 영어로 발표된 논문은 전혀 없다. 다만,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음악백과사전(Encyclopedie de la Musique)에 “Essai Historique sur la musique classique des Chinois avec un appendice relatif a la Musique Coreenne”가 있으며, 안드레아스 엑카르트(Andreas Eckardt, O. S. B.) 박사가 저술한 “Koreanische Musik”이 있다. 그리고 고대 중국 및 한국의 저서들이 있는데, 번역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본 논문의 주제에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 외에,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고전음악의 보급, 기보법, 수집 및 보존을 위해 한국 음악가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왕직 아악부(Prince Ye Conservatory), 이왕직 아악부 관현악단(Prince Ye Orchestra)와 가수들의 연주 및 노래를 녹음하는 일본 빅터축음기(Victor Talking Machine Company of Japan)사, 한국 고전 및 대중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J. O. D. K. 방송국이 있다. 영향력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 고전음악의 후원자이며,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 고전음악은 지속되고 장려되고 있다. Confucian College(성균관)는 고대 유교제례를 정기적으로 올리는데 그 때 손님들의 참석을 허용한다. 여기서 고대의 악기, 화려한 색의 예복,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음악을 통해 과거 한국의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전역의 수천 개의 라디오를 통해 일본 및 서양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대개 서양 고전음악과 동양의 대중음악이다. 동양 대중음악은 단조가 우세한 서양의 재즈음악을 모방한 것이다. 또한, 서양 고전음악에 대한 선호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음악과 학생들은 초기에 바흐와 베토벤에 빠져들고 관객들도 그러한 음악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주회 무대는 거의 전부 서양 고전음악이다. 서양 음악의 도입과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기독교이다. 교

회음악의 영향력은 교회를 훨씬 능가하며 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들까지 미치고 있다.

모든 음악은 그 민족의 마음과 같다. 음악을 모르면 그 민족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또한, 음악이 한 민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가 한 국가의 음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자가 자국에 맞는 형태의 음악을 만들고 있던 시기에 플라톤은 제자들에게, “음악 양식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음악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사에 대한 연구, 특히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는 한국 음악을 이해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양국은 일찍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와 섞여 있어 고대 중국 문화에 관한 거의 모든 기록이 한국 문화에 적용된다. 2천여 년 전 중국은 5음의 기본 음계와 12음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수학과 철학은 물론, 정치, 종교, 성(性), 우주, 색깔, 5가지 요소 (나무, 불, 흙, 금속, 물), 4계절, 12달 및 12년 주기(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와 관련한 이론, 음악 이론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중국어로 기록된 고서(古書)에 대한 번역과 연구는 한없이 힘든 작업이지만 이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중국인들은 대나무 피리로 음조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했다. 측정을 위한 표준규격은 수수 낱알 9개를 세로로 배열함으로써 결정되었고, 기본음은 길이가 0.9 피트(27.432cm)이고 둘레가 2.286cm인 피리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오늘날의 C음에 해당한다. 9인치(22.86cm)의 2/3 길이의 피리는 G음 즉, C음 위로 5번째 음을 내는 6인치(15.24cm) 관이 되었다. 6인치(15.24cm) 피리의 4/3은 D음 즉, G음 아래로 4번째 음을 내는 8인치(20.32cm) 피리가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8인치(20.32cm) 피리의 2/3는 A음 즉, D음 위로 5번째 음을 내는 5.3332인치(13.5463cm) 피리가 되고, 그 다음 5.3332인치(13.5463cm)의 4/3이 E음 즉, A음 아래로 4번째 음을 내는 7.1008인치(18.036cm) 피리가 되었다. 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에서 이러한 12음의 계산 방법을 보여준다.

부츠는 본인이 보고 느끼고 조사 연구한 한국음악을 고조선부터 1939년까지 기록하였으며, 부츠가 서술한 한국음악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① 삼국 이전

부츠는 중국 측 자료들을 섭렵하여 한국의 삼국 이전 음악을 중국의 유교와 연관시켰다. 한국음악계에서는 삼국

이전의 음악에 대하여 제천의식의 악무, 안악고분에 나타난 악기, 동이족의 악속(樂俗) 등 단편적인 음악사를 서술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음악문화에 관해서는 삼국시대가 후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되어 있다.[8] 아직 한국음악계에는 삼국이전 음악과 중국음악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데, 이렇게 연구가 미진한 점에 대해 그간 한국음악학 전공학과가 해방이후 늦게 만들어진 점, 이 때문에 학문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또한 한국학의 현실에서 예악사상이라는 문사철(文史哲) 혹은 인문정신의 맥락과 전통에서 이해되어야 할 한국전통음악은 국문학, 역사학, 철학 등 인문학과는 별개로 연구되어 관련 학문들과의 긴밀한 교류가 두절된 상태에서 깊이 연구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고, 역사적 현실과 철학사상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삼국이전에 우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문화전통과 우리 음악을 철학적 배경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보다 우리 음악문화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성찰하기도 하였다.[9]

부츠는 이미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유교 즉, 중국의 오덕, 오륜과 관련한 숫자 5와 삼국이전 음악을 연관시키고 있다.

역사와 전통은 기원전 약 2333년 단군왕검으로부터 시작된다. 단군왕검은 맴피스의 케옵스(Cheops)와 바빌론의 함무라비와 동시대 인물이다. 그의 통치와 관련한 역사에서 어느 정도가 신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군왕검은 한국에 “아침의 나라”라는 의미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 그와 동시대 중국의 왕인 요로부터 오덕(인, 의, 예, 지, 신)과 오륜(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형제, 어른과 아이, 부부 및 친구의 관계)이 시작되었다. 숫자 '5'가 얼마나 많이 중국과 한국의 우주관에 관여하는지 주목하는 것도 또한 흥미롭다. 이 시기의 음악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배를 건조하고 자기와 제련된 철로 만든 검과 같이 문명이 발전되었던 것으로 보아 분명 국가적 의식과 음악이 정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중요한 왕인 기자(Kija)는 기원 전 1122년에 중국에서 학자, 점성술사, 음악가, 숙련된 장인을 비롯한 5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왔다. 그가 중국을 떠난 이유는 주나라를 세운 무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나라가 건립된 지 약 6백 년 후 중국 음악은 매우 발전되었다.

주 왕조 시기에는 음악이 정규 교육뿐 아니라 모든

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실제로, 의례와 음악만을 관장하는 대신이 있을 정도였다. 중앙 정부의 이러한 장려와 함께 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제1권력자이자 섭정자이며 주성왕(周成王)의 삼촌인 주공(周公)은 중국 음악사에서 이 시대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 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음악위원회(Board of Music) 설립 계획을 마무리했으며, 노래를 수집 및 기록하기 위해 많은 음악의 대가들을 고용했다. 왕실 선조들의 의과 덕을 찬양하는 노래가 작곡되고 악기로 음악이 연주되었는데 일부 악기는 청동과 옥으로 만들어졌다. 이 시기(기원전 11세기)의 악기들은 모두 중국 고유의 악기이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로 남아 있다. 이 악기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매우 잘 수용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시기의 노래는 3천 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5세기에 공자가 이 노래들을 수집 및 편집했는데, 그 중 305곡이 오늘날 시경(詩經)에 남아있다. 공자는 음악을 교육의 6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여겼다. 다른 5가지 요소는 의례, 궁술, 수학, 문학, 승마술이다. “이상적인 국가는 그 기질이 예와 율(禮律)에 의해 형성된 국가이다.”라고 공자는 말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일반적 이론은 “백성들의 국가에서는 음악을 우선 강조하고 처벌은 마지막에 한다.”였다.[10]

② 삼국시대

삼국시대 음악에 대한 부츠의 설명은 기존의 한국연구자들의 연구내용과 다름이 없다. 즉 부츠는 삼국시대의 악기로 고구려의 거문고, 백제의 횡적·막목·공후, 신라의 가야금을 설명하면서, 부츠가 한국에 있었던 1920~1930년대에도 거문고는 가장 인기 있는 악기이고, 가야금은 순전히 한국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악기임을 말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3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가 번영한다. 고구려인들은 “주로 별판에 거주했고 거칠고 과격했으며 강인했다. 그들은 밤에 음악과 향락을 즐겼다.” 아마도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악기는 고구려 왕산악이 만든 거문고일 것이다. 거문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중국에서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지만 아무도 그 악기를 연주할 줄 몰랐다. 이에 왕산악이 칠현금을 개조하고 약 100개의 거문고 연주곡도 작곡했다. 어느 날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검은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선율에 맞춰 춤을 추었고, 그로 인해 거문고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백제 문명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는 수도 부

여의 불탑, 천장이 대리석과 돌로 되어 있는 왕릉과 그 안에 있는 왕관과 벽화 등이 있다. 또한 백제 음악에 관해 언급한 고서들이 있는데, “백제에서는 춤을 추고 3개 악기 즉, 횡적과 막목, 공후를 연주할 음악가들을 임명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신라는 순전히 한국적이면서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한국 악기로 여겨지는 가야금의 발전에 기여했다. 가야금은 사실 가야의 우륵이 만든 악기이다. 우륵은 가야 가실왕의 명령으로 12곡의 가야금 연주곡을 만들었으며 그 명성은 신라에까지 퍼졌다. 가야가 멸망하자 그는 신라로 귀화하여 궁정 악사들이 스승이 되었다. 법지와 계고, 만덕이 우륵에게 노래와 춤, 악기 연주법을 전수 받도록 임명되었다. 그들은 11개 곡을 배웠지만 박자가 너무 빠르다고 여겨 그 중 5곡만 선택했다고 한다. 우륵은 처음에는 매우 화를 냈지만 결국 인정하고 왕 앞에서 연주하도록 그들을 보냈다. 왕은 매우 만족해했지만, 그 곡들이 몰락한 왕국의 것이기 때문에 신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신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신라왕은 가야가 멸망한 것은 왕의 잘못이며, 왕의 잘못은 좋은 음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11]

또한 만파식적(萬波息笛)에 대해 썼는데, 부츠는 만파식이라고 부르는 피리(flute)가 있었다고 하였고, 만파식과 대금과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신라 때 신문왕이 만든 대금도 가야금과 더불어 한국 음악사에 중요한 악기라고 하였다.

이후 고려왕조 때 편찬된 삼국시대에 관한 책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만파식(萬波息)’이라는 피리에 관한 설화가 나온다. ‘만파식’이란 “만가지 풍파를 잠재우다”라는 뜻인데, 당시 왕이 그 피리를 연주하자 파도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는 신문왕 때 일이다. 동해에 거북 머리처럼 생긴 산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낮에는 2개로 갈라지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신문왕은 그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도록 명령했다. 역사에 따르면 대금은 신문왕이 만들었지만, 만파식과 대금과의 관련성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신라의 대금 및 가야금과 고구려의 거문고로 인해 삼국시대는 한국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다. 이 악기들은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12]

부츠는 신라 때 경주의 성덕대왕신종(일명 봉덕사종 또는 에밀레종)에 대해서, 종의 크기, 무게, 형태, 그리고 종

의 표면에 새긴 명문 등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음악사에서 각 사찰에 소장된 종의 경우, 종에 새겨진 주악상(생황, 비파 등의 연주)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기타 종에 대한 미술사적 의미, 명문 등의 설명은 수록하지 않아 왔다.[13] 부츠는 성덕대왕신종을 음악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악기연주에 대한 설명이 없는 반면, 오늘날 한국의 음악계에는 악기연주(생황) 설명은 있으나, 종에 대한 자세한 기술 내용이 없으므로 부츠의 설명방식을 한국음악계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신라시대에는 평화와 풍요를 누렸다. 702 ~ 737년 간 신라를 통치했던 “선하고 위대한” 왕을 기리어 직경 약 2.28m, 높이 약 3.65m, 무게 80kg에 달하는 거대한 청동종이 주조되었다. 그 종은 오늘날 경주에 세워져 있는데 너무 거대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단단한 나무로 된 타종봉으로 때리면 48km가 넘는 곳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가장 위대한 학자가 이 종의 표면에 새겨 넣은 명문은 오늘날에도 읽을 수 있다. “진정한 종교는 가시적인 범위를 초월한다. 그 원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다. 소리가 그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이 공기를 통해 들리는 것처럼 종교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거대한 종을 통해 부처님의 부름을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성덕대왕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도 적혀 있다. “강과 산처럼 영원한 업적, 태양과 달과 같은 영광, 진실되고 고결한 통치. 의례를 정비하고 언제나 음악과 함께 하셨다.”[14]

부츠는 통일신라시기의 중국의 예술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황제 현종이 예술에 치중한 결과, 오히려 백성들은 예술에 반감을 갖게 되어 무관심하게 되었고, 당나라 이후의 중국음악은 유교사원 음악 이외에는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중국 음악을 유지해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음악이 보존되어 옴으로써 중국에서 사라진 중국 예술의 진수를 한국음악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일본에 음악문화를 전수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한국 음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 예술은 절정에 이르렀다. 당나라(618-907년) 황제 현종은 예술의 후원자였을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작곡가이자 배우였다. 그는 궁궐 내에 공연장을 세우고 공연에 직접 참여했다. 30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예술 활동에 대한 열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결과 국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반감을 갖게 되면서 음악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

다. 맹기(孟祺)의 “중국 음악 및 악기에 대한 고찰 (Remarks on Chinese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에 제시되어 있는 당시 황제 관현악단의 그림은 중국 당나라 궁중 내의 음악 공연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당나라 이후, 중국 음악은 더욱 자생적이고 덜 학문적이게 되었다. 따라서 유교 사원 음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음악을 전수 받은 한국은 중국 음악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왕직 아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음악의 보존은 그렇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고대 중국 예술의 진수를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또한, 여러 일본 고서에 백제인들이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은 일찍이 일본의 스승이었다.[14]

③ 고려시대

부츠는 고려시대의 음악의 경우 예종 때 송나라 휘종이 전해준 악기와 악보를 소개하였을 뿐,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작곡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음악에는 향악(鄕樂), 당악(唐樂), 아악(雅樂)이 있었고, 부츠가 언급한 송 휘종이 보내준 악기는 당악과 아악에 포함되고, 부츠가 언급하지 않은 고려 때의 향악은 『고려사악지』, 『시용향악보』, 『대악후보』 등에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 다수 수록되어 있어, 부츠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고려시대의 음악만을 언급했을 뿐, 정작 고려 때 불려 졌던 향악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듯 하다.

고려시대(918-1392년)의 경우, 한국 음악사에서 중요한 악기 제작이나 작곡은 전혀 없지만 음악이 육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종(睿宗) 9년에, 중국 송나라 휘종(徽宗)이 다음과 같은 악기와 악보를 한국에 보냈다.

철방향(鐵方響), 석방향(石方響), 비파(琵琶), 오현(五絃), 쌍현(雙絃), 쟁(箏), 공후(箏篋), 피리, 적(笛), 지, 소(簫), 생황(笙簧), 훈(塤), 대고(大鼓), 장고(杖鼓), 박판(拍板), 곡보(曲譜)

이 악기들은 주로 제례의식에 사용되었고, 이것이 제례 음악의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15]

신라 때의 만파식적과 더불어 고려 때에는 옥피리가 있었다고 한다. 부츠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의 『교성승람(矯省勝覽)』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려왕은 이 옥피리를 신성

한 피리라고 하며 경주로 돌려보냈다고 하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중인 옥피리는 부츠가 언급한 『교성승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지만, 한국 측 사료에 의하면 조선 전기 때 이석형(李石亨, 1414~1477)이 쓴 계림옥적(鷄林玉笛)이라는 시에는 신라의 옥피리가 등장하며[16],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옥피리가 길이 한 자 아홉 치에, 동해 용이 바친 것으로 역대 임금들이 보물로 삼아 전했다는 내용이 보이는 등[17], 조선시대의 여러 문집에 옥피리 기록이 나타난다. 이 논문을 통해서 옥피리에 대한 한국음악의 역사를 일본 측 사료인 『교성승람』을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교성승람(矯省勝覽)에 유명한 옥피리와 한 고려 왕에 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 피리는 동해의 용이 신라 왕에게 선물한 것으로 경주에 있는 신라 궁중에서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수도가 송도로 바뀐 후 고려 왕이 그 옥피리를 연주하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그가 피리를 불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고려 왕은 그것을 신성한 피리라고 여기고 경주로 돌려보냈다. 그 피리는 오늘날 경주 소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길이는 53.34cm이며, 청량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18]

④ 조선과 일본식민지 시대

조선시대에는 창작 및 이전 음악에 대한 개편, 이전 악기의 개조, 음악 서적 편찬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음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1392년에 한국의 마지막 왕조인 조선을 건립한 이 태조는 반대세력에 시달렸고 조선 건국 당시 수도였던 송도에서의 한양 천도와 관련한 혼란과 약 6개월 간 20만 명이 세운 한양 도성 등의 큰 과업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육성했으며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시대 궁중 음악가가 8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18] 세종대왕(1397~1450)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세종실록에 음계를 토대로 음악편도 만들었고, 정대업, 보태평, 용비어천가를 짓는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태조의 손자인 세종대왕(1418년)은 한국 역대 왕들 중 가장 학구적이고 현명하며 어진 왕이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한글을 창제했을 뿐 아니라, 많은 음악가와 학자들은 육성하여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기여를 했다. 세종대왕 이전에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은 문학을 즐길 수 없었다. 관료들은

한글이 문학의 수준을 떨어뜨려 그 품위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종의 한글 창제 계획을 만류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자신의 계획을 달성했고 간편성과 효율성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한글 창제 시 세종은 음계를 토대로 했으며, 옛 한국 전서(全書)에는 “음악”편에 한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한글 창제 전에는 구어(口語)를 전혀 기록할 수 없었지만,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해학, 구비설화, 민요 및 사랑가가 기록되었다

또한 당연히, 이 위대한 왕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가 작곡되었다. 성균관(成均館) 학자 정인지는 1450년에 세종과 그의 부왕 태종을 기리어 “정대업, 보태평”을 지었다. 또한 정인지는 다른 2명의 학자와 함께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124절로 이루어진 노래인 “용비어천가”를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용비어천가는 대규모 유생들의 집회나 궁중 제례 및 연회에서 불렸으며,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시가(詩歌)라는 데 있다.[19]

한국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인 박연(朴堧, 1378~1458)은 작곡, 지휘, 악기 제작자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정립했고, 아악과 당악은 부흥시키는 반면, 향악이 저급하다고 하여 숫자를 줄여 민속음악이 많이 남지 않음을 부르는 설명한다.

충북 영동에서 출생했으며 한국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불리는 박연은 세종시대의 악성(樂聖)이었다. 그는 작곡가이자 지휘자, 악기 제작자였다. 박연은 고대의 악기와 새로운 악기를 모두 합쳐 총 75개의 악기를 정리했다. 이왕직 아악부는 박연을 창립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는 박연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다.

박연은 범패를 정립했다. 당시 3종류의 음악 즉, 아악, 당악(중국에서 유래한 음악), 향악이 있었는데, 박연은 향악이 저급하다고 여겨 그 양을 상당히 줄였다. 또한 여악(女樂)들을 싫어하여 궁중에서 그들의 공연을 금지하고자 했지만 다른 관료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향악과 여악의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 민속음악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19]

부츠는 세조(1417~1468)도 음악가로 세종때 창제된 정대업과 보태평을 개편한 사실을 언급한다.

세조는 불명예스럽게 집권했지만 후에 불교신자가

되어 2개의 기념물을 남겼는데,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형 종(1468년 주조)과 “과고다 공원”에 있는 불탑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는 악기들이 개조되고 그 수는 60개로 줄었다. 세조 또한 음악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엑카르트(Eckardt)는 세조가 선왕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보태평(Melody of Protection of that Great Peace)”을 개편하고, 현악기와 횡적(橫笛)을 더하여 세조의 “정대업(Melody of the Eternal Spring)”를 개선한 사실을 지적한다.[20]

성종(1457~1494)은 『악학궤범』의 편찬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부츠는 말하였다.

1470년에 왕위를 이은 세조의 손자인 성종은 상당한 문학 및 예술적 취향을 가진 성군이였다. 세조가 착수한 한국 역사서를 완성했는데 오늘날에도 표준 역사서로 여겨진다. 또한, 성종 통치기에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한국 음악 이론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이 편찬되었다. 성현 등의 학자들이 왕명에 의해 펴낸 악서(樂書)로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음악에 대한 일반 연구(The Normal Study of Music)”이며, 총 9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493년 편찬되었으며,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1권 음색, 음조, 음계 및 음악이론
- 제2권 관현악단의 악기 배치
 - 가) 제향 음악 연주 시
 - 나) 속악 연주 시
- 제3권 “고려사”의 당악무에 대한 설명
 - “고려사”의 속악무에 대한 설명
- 제4권 실제 행해지는 당악무에 대한 설명
- 제5권 실제 행해지는 향악무에 대한 설명
- 제6권 제향에서 사용되는 악기에 대한 설명
- 제7권 당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에 대한 설명,
 - 향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에 대한 설명
- 제8권 당악무에서 사용되는 의복과 복식에 대한 설명(예, 부채, 탁자 등)
- 제9권 악사와 무희들의 복식에 대한 설명[20]

부츠는 게일의 말을 인용하여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추강집(秋江集)』에 호무(胡舞)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를 조선시대 국가 의례에 재즈 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한국의 음악사에서 호무에 대해서는 ‘몽고 춤의 하나, 고려 말 신우(辛禰)가 즐겨 추었다고 하나 어떤 춤인지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고려사』 권137

열전50,12a)’[21]로 되어 있고, 무용사에도 호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호무에 대하여 중앙아시아 계통으로 본 논문[22]도 있는데 아직까지 호무가 어떤 음악과 춤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부츠가 한국의 호무를 미국의 재즈댄스와 관련시켰는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게일(Gale)은 조선시대 때 국가 의례에 “재즈” 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단히 박식하고 청렴한 인물로서 재즈의 고향인 미국이 발견되었던 해인 1492년에 사망한 남효온이 재즈 댄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으며, 게일이 이를 번역했다.

“우리는 오랑케의 춤을 배웠다. 머리를 빠르게 흔들고 결눈질하고 등과 다리, 팔, 손끝을 둥글게 구부렸다가 통기는 활에 묶여있던 것처럼 불쑥 내민다. 그런 다음, 강아지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앞으로 달려갔다가 곰처럼 푹푹하게 서서 날개를 활짝 펼친 새처럼 확 덮친다. 신분이 가장 높은 대신에서부터 가장 신분이 낮은 여악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춤을 배우고 즐겼다. 이 춤은 호무(胡舞) 즉, ‘오랑케의 춤’이라 불리며, 악기로 반주를 한다. 처음에, 내 친구인 안자정은 반대했지만 나는 그 춤을 다소 좋아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시도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춘다. 왜 사람의 몸으로 동물의 몸짓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나는 단장경(Tan-Chang-Kyung) 즉, ‘원숭이의 목욕’이라는 춤에 대한 개차공의 관람평을 읽을 때까지는 그의 말이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했다.”[23]*

* 또한 남효온의 『추강집』 제 7권 잡저(雜著)의 냉화(冷話)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람합(兀良哈)의 춤을 본받아 머리를 흔들고 눈을 쳐들며, 어깨를 솟구치고 등을 굽히며, 두 다리와 열 손가락을 동시에 굴신하면서 흑활을 당기는 모양을 짓고 흑 개가 걷는 모양을 지으며, 곰이 나뭇가지에 매달리고 새가 다리를 뻗는 듯이 하며, 나아가고 물러날 때에 바람이 일어나게 하니, 공경대부(公卿大夫)로부터 사서인(士庶人)과 광대, 여자에 이르기까지 음률을 알거나 몸이 가벼운 사람이면 추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것을 호무(胡舞)라고 부르며 관현악에다 올렸다. 의정부 우찬성 어유소(魚有沼)가 이 춤을 매우 잘 추었다. 나도 처음에는 풍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는데, 고인이 된 벗 자정(子挺)이 극언으로 비판하기를 “남에게 아첨하는 행동과 유약하고 굽실거리는 태도는 사람이 행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오랑케는 비유하자면 금수와 같은 것이니, 어찌 내 몸에다 금수의 일을 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자못 옳지 않다고 여겼다. 나중에 《한서(漢書)》에서 개차공(蓋次公)이 단장경(檀長卿)의 목후무(沐猴舞)를 탄핵한 것을 읽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자정의 논평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으니, 전대의 현인과 후대의 현인이 동일하게 해야 했던 것이다.

박연이후 한국음악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1800년대의 명완벽은 아악의 전통을 고수하였고, 1900년대 초의 함화진은 국악발전에 기여하였다.

박연 이후 한국 음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왕직 아악부는 아악 전통을 고수했다. 그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한 저명한 인물들 중 명완벽이 있다. 그는 중국의 기록, 고전음악, 가야금, 종, 양금 및 해금을 연구했고 1862년에 이왕직 아악부를 졸업했다. 1864년에 장악원 전악으로 임명되었고 1889년에 악사가 되었으며, 1895년에 제3대 아악사에 올랐다. 또한 1904년에 장악원 제5대 국악사, 1911년에 이왕직 아악사에 임명되었으며, 1916년에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사장이 되어 매우 오랫동안 그 직무를 수행했다.

현(1939년) 아악사장인 함화진 또한 한국 국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물로 특히, 가야금에 능했다. 그의 지휘 하에 관현악 편성법과 노래들이 기록되었으며 공연자와 학생들이 악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음악을 들을 때 그 악보가 입과 손으로 스승에게서 제자로 수백 년 동안 전해졌음을 깨닫는 것은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박연(14세기)이 최초로 악보 기보법 만들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학생들이 악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24]

부츠가 이 논문을 집필한 1939년의 한국 상황은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황국신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이다. 학교교육과 관공서에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고 일본어를 국어로 하여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으며, 특히 1939년부터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단행했다.[25] 일제는 국가적인 제반의식을 폐지시킴으로써 음악계가 위축되고 악사들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부츠는 1939년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한국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노력했으며, 부츠는 이렇게 한국의 보존된 고전음악을 보게 되어 기쁘며, 한국이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15세기 후반 800명에 달하던 궁중 악사는 점차 감소하여 최근 이왕직 아악부의 인원은 58명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이왕직 아악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는 최근에 은퇴하거나 작고한 악사들의 후계자 교육을 받도록 권유했다. 현재 이 아악부에는 소수의 나이 든 악사들만 남아 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과정을 졸업했으며,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제자였지만 일본의 스승이었다. 서양 사학자들은 자주 한국 사신들에게 악사들을 함께 데려오도록 권유했으며,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악사들이 그들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온다. 일본 악기와 음악은 한국의 영향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국의 보존된 고전음악을 보게 되어 기쁘며, 한국이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26]

부츠는 게일(Gale)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인은 문화수준이 높은 민족임을 공감하지만, 급속히 들어오는 서구 문명 앞에, 서구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와 다양한 연주기회가 제공되지만, 일생동안 연구가 필요한 국악연주자들에게는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인 일자리와 적은 연주기회가 제공됨을 안타깝게 여긴다.

게일(Gale)은 ‘한국인들의 삶 속에는 문학 정신, 시, 색깔, 의례, 음악을 포함하여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 지니는 다른 모든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고 말하며 [27], 우리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게일은 “소위 서구 문명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고, 젊은 한국인이 서양인은 목구멍 전체를 열고 힘껏 노래하는데 왜 자신은 가성으로 노래해야 하는지, 그리고 트롬본과 바이올린이 현대 시대를 더 잘 표현하는 데 왜 자신은 옛날 악기의 연주에 일생을 바쳐야 하는지 묻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다.

우리는 이러한 젊은 한국인의 고민에 공감한다. 한국 고전음악에 대한 연구가 일평생을 필요로 하며 고전음악 전문 연주자에게 열려있는 자리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이 매우 어렵고 파분한 직업에서 어떠한 실용적인 가치도 보지 못한다. 반면, 바이올린이나 트롬본은 아주 좋은 직업과 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

오늘날 그들은 Eckardt(Eckardt)가 번역한 악기(樂記) (고대 중국 악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맑고 흔들림 없는 음들은 하늘을 표현하고 분명하지 않은 요란한 음들은 땅을 표현한다. 연속되는 음이 4계절을 보여주고, 음의 움직임들이 바람과 비를 암시한다. 5가지 색깔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8방향의 바람(8 종류의 악기)이 음악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음악은 하늘과 땅의 조화이다. 모든 존재는 조화로부터 생겨나서 성장한다. 계층을 통해 다수의 존재는 결정된다.” 경제적 필요성과 도입된 혁신적인 것들의 유혹으로 인해 모든 면에 압박 받고 있는 현대 한국인은 이 높은 수준의 예술에 대해 이해할 시간도 기회도 없

다. 또한, 국가 의례 및 제례와 관련된 악기들을 조사 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박물관을 제외하고 그러한 악기를 위한 장소가 거의 없고 그 악기의 연주자들이 연주할 기회가 적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28]

그러나 서양인이나 현대 한국인들에게 국악은 낱낱대머 요란하게 이어지는 소리와 겉으로 보기에는 계획도 없는 음악으로, 부채 모양의 박을 치고 지휘자도 없는 단조로운 소리만 들리다 끝나는 음악이다. 그러나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배우고 이에 흥미를 느끼는 이들에게는 한국의 음악이 조화롭고 품위있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선율과 옛 선인들의 문화와 다채로운 표현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부츠는 국악감상에 대단한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양 음악을 배운 서양인이나 현대 한국인은 한국 고전음악을 감상할 때 어떤 소리를 듣는가? 아마도 일반 관객은 이따금 울리는 자바라와 징, 북 소리에 함께 낱낱대머 요란하게 이어지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 음악은 계획도 도안도 없이, 부채 모양의 박을 쳐서 시작을 알리는 사람의 지휘 외에는 아무런 지휘도 받지 않고 되는데로 이루어지는 연주이다. 이 단조로운 소리의 반복은 30분쯤 지나면 저절로 끝난다.

그러나 한국의 음악사와 문화를 배우고 흥미를 느끼게 된 이에게는 이 낯선 악기들의 요란하고 무질서한 소리가 점차 형태를 갖추게 되며 선율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양 음악의 특징이지만 동양 음악에는 완전히 결여된 듯한 조화가 실제로는 품위 있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선율과 함께 옛 선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다채로운 표현 속에 잘 어우러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과연 서양인이 동양인 만큼 한국 국악을 감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 음악에 대해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악기들의 “속삭이는 말처럼 부드럽다가 어느 순간 커지고, 진주가 대리석 접시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은 소리 같다가 덩불 속 피꼬리의 노랫소리처럼 들리고, 개울물이 아래로 졸졸 흐르는 것 같다가 빠르게 흐르는 물살과 같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29]

부츠가 본 한국음악사를 요약하면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 유교의 영향이 있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음악의 영향을 신라이후로 보고 있으나, 부츠의 연구에서 삼국이전 음악에 중국 음악의 영향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거문고, 백제의 횡적·막목·공후, 신라의 대금·야금이 중요한 악기였으며 신라 때 경주의 성덕대왕이 음악과 함께 했음을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신라시기의 중국의 예술은 질정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그 반감으로 예술에 무관심하게 되어 유교사원 음악 외에는 전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 안에 중국음악을 보존해옴으로써 중국 예술의 진수를 한국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음악문화를 전수하여, 중국과 일본사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송 휘종이 전해준 악기와 악보외에는 새로운 작곡도 없다고 하였으나, 한국음악사에서 당악, 아악 외에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의 향악이 전해지고 있어 부츠는 고려 때의 음악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츠는 또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중인 『교성승람』을 통하여 옥피리 역사를 말하고 있으므로, 한국음악계에 거론되지 않은 『교성승람』 사료를 통한 옥피리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음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세종의 한글 창제, 용비어천가·정대업·보태평 창악, 박연의 악기제작, 세조의 정대업·보태평 개편, 성종의 『악학궤범』 편찬 등의 업적이 있었고, 남효온이 국가 의례에 재즈 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박연이후 한국음악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1800년대의 명완벽은 아악의 전통을 고수하고, 1900년대 초의 함화진에 의해 그나마 국악이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부츠가 한국에 거주했던 시기인 일본식민지시대에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고,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한국의 국가적인 제반의식을 폐지됨으로써 음악계가 위축되고 악사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음악인들이 전통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부츠는 이렇게 보존된 한국음악을 보게 되어 기쁘며, 전통문화를 보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IV. J.L.Boots가 본 한국악기

부츠는 8가지의 재료 즉 금속(金), 돌(石), 비단(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에 따라 악기를 분류하고, 악기 중 타악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순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음악에는 서양 음악과 달리 악절구분이 없기 때문에 현악기가 다른 악기들이 쉴 때 연주를 쉬지 않고 이어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중국인들처럼, 한국인들은 8종류의 재료 즉, 금속, 돌, 비단, 대나무, 박, 흙, 나무 및 가죽에 따라 악기를 분류한다. 서양식 분류에 따르면, 한국의 타악기는 관악기와 현악기보다 훨씬 많고 현악기가 가장 적다. 그러나 관현악단에서 현악기의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은 아니다. 서양 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악절 구분이 한국 음악에는 없어서 소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듣는 이가 음악적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활로 연주하는 현악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악기들이 한숨 돌릴 때 연주가 중단되지 않게 할 필요성 때문이다. 현악기 연주자는 관현악단에서 가장 존경 받는 구성원이다.[30]

한국에는 극동에서 가장 오래된 종들이 있으며, 한국의 모든 사찰이 종을 보유하고 있고, 경주 종에는 목관악기와 현악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이 아름다운 구름 속에 모여 있고, 얇은 옷을 여러 겹 둘러 걸치고 마침내 공중으로 나라 올라 구름에 싸여 타원형이 되며, 시각적인 요소와 소리의 조화가 이 신라의 고대 청동 종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31]

부츠는 고대의 미학적 개념과 악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명한 군주는 종소리를 들으며, 군관을 생각하고, 돌의 소리를 들으며 국경에 있는 군관을 생각하고, 현악기 소리를 들으며 유능하고 의로운 관리를 생각하며, 관악기 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는 현명한 관리를 생각하고, 타악기소리를 들으며 고위관리를 생각하고, 악기 연주를 들으며 자신의 왕국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명령을 선포한다. 명령은 열정을 자극하데 기여한다. 열정은 성공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한다. 현명한 군주는 종소리를 들으며 군관들을 생각한다.

맑은 돌의 소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며, 이는 생명의 회생에 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군주는 돌의 소리를 들으며 국경지역에 머물고 있는 군관들에 대해 생각한다.

전사로 된 현의 소리는 개탄스럽다. 그것은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단호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현명한 군주는 비파 소리를 들으며 유능하고 의로운 관리들을

생각한다.

대나무의 소리는 풍부하고 매우 멀리 퍼진다. 그 소리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단결하게 한다. 현명한 군주는 피리와 횡적의 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들을 결합시키는 관리들에 대해 생각한다.

요란한 북과 탬버린 소리는 특히 행동을 자극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북과 탬버린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명한 군주는 북과 탬버린 소리를 들으며 고위 관리들에 대해 생각한다.

현명한 군주는 악기 연주를 들을 때, 악기의 음색뿐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관련하여 그 음색들의 의미도 생각한다.[32]

부츠는 악기 분류를 이왕직악부의 카탈로그에서 발췌했다고 하였고, 악기연도를 포함한 설명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자료를 엮은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악기의 기원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의 연도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실제 부츠가 이 논문에 기술한 악기의 연도 내용과 한국연구자들의 연구한 악기 연도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금속악기 10종의 예를 들어 살펴보았을 때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츠는 편종이 한국에 1370년에 들어왔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편종은 예종 11년(1116년)에 송나라에서 수입된 악기로 알려져 있고[33] 특종에 대한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 세종때 박연(朴堧, 1378~1458)이 아악을 정비할 무렵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부츠가 언급한 1370년에는 이미 특종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4] 양금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조선 영조(1694~1776)전후로 알려져 있으나[35], 부츠는 1224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바라와 징은 고려 때, 대금과 소금은 세종 때, 나발의 연도는 알 수 없다고 한국 측 자료에는 나와 있으나 부츠는 자바라, 징, 바라, 대금, 소금, 나발을 모두 1370년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악기도입 및 사용 연도 비교

악기명	악기도입 및 사용 연도 (부츠[30])	악기도입 및 사용 연도 (한국측 연구[35])
편종	1370	예종 11년(1116년)
특종	1370	박연(朴堧, 1378~1458) 무렵 이미 사용하고 있었음
방향	1114	문종 30(1076)때
양금	1224	영조(1694~1776)전후

자바라	1370	고려(918~1392)때
징	1370	고려(918~1392)때
바라	1370	고려(918~1392)이전
대금	1370	세종(1418~1450)때
소금	1370	세종(1418~1450)때
나발	1370	알 수 없음

즉 부츠가 기술한 한국 악기 내용은 우선 정확한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부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기의 기원, 연도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서의 악기 내용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츠는 매 악기마다 중국 측, 한국 측의 연대(날짜)를 표시하려고 노력했으나,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는 각 악기의 도입시기나 사용시기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고 정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한국음악계에서 기본적으로 악기에 관한 연구가 먼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이 연구에서 말해주고 있다. 부츠가 기술한 한국악기 설명을 아래에 열거하였다.

가. 금속악기[36]

① 편종(偏鍾)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370년

중국 음악가인 윤(Yoon)이 만들었다. 한 단에 8개씩 2단의 나무틀에 총 16개의 청동 종이 매달려 있다. 조각의 형상들은 용, 사자, 불사조, 연꽃이다. 사자 형상은 “금속”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측면에는 펑 깃털들과 술 장식이 있다. 종의 외형은 위쪽과 아래쪽의 직경이 거의 동일하고 가운데가 더 넓은 형태로 크기가 모두 동일하지만, 내부의 두께가 다르다. 오른 쪽 아래 첫 번째 종의 두께는 옆에 것보다 얇고, 오른 쪽 위 마지막 종이 가장 두껍다. 두꺼운 종은 높은 음을 내고 얇은 종은 낮은 음을 낸다. 반음계씩 높아지며, 추는 없고 망치로 친다. 악학계법에는 제례악에서 하단의 종은 오른손에 든 망치로 때리고 상단의 종은 왼손에 든 망치로 때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손으로만 친다.

② 특종(特鍾)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370년

편종과 유사하지만 더 큰 단일 청동 종이다. 관현악대의 연주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③ 방향(方響)

중국 - BC 526년, 한국 - AD 1114년

편 건사로 된 줄에 묶인 나무틀에 16개 철제판이 2줄로 배열되어 있다. 반음계씩 높아지는 것은 편종과 같지만 한 옥타브가 더 높다. 얇은 것은 낮은 음을 내고 두꺼운 것은 높은 음을 낸다. 끝이 소뿔로 된 망치로 치며, 당악에 사용되었다. 쿠랑에 따르면, 당나라 초기에 9개의 오랑캐 관현악단에서 이 악기에 대해 최초로 언급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 악기가 분명 중앙 아시아에서 유래했음을 의미한다.

④ 양금(洋琴)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224년

중앙 아시아의 쿠차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본래 인도에서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양”이란 ‘외국’을 의미한다. 14개씩 4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총 56줄로 되어 있으며, 오른손에 든 가는 채로 줄을 가볍게 두드려 연주한다.

⑤ 자바라(嗒啞囉)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370년

작은 자바라는 본래 이집트에서 인도를 통해 전해졌다고 한다.

⑥ 징(鉦)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370년

손으로 끈을 잡고 끝이 가죽으로 된 목재 채로 친다.

⑦ 바라(啞囉)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370년

크고 무겁다. 대개 사찰에서 사용된다.

⑧ 대금(大金)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370년

크지만 정보다는 작다. 한국 제례악에서 사용된다.

⑨ 소금(小金)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370년

작고 대금과 유사하다.

⑩ 나발(喇叭)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370년

길며, 약 91cm에 이를 때도 있다.

나. 돌로 만든 악기[37]

① 편경(編磬)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370년

“경돌”로 된 16개 판이 나무 틀 안에 각각 8개씩 2단으로 매달려 있다. 백조의 형상은 대표적인 돌 조각 품이다. 종의 길이와 넓이는 모두 거의 동일하지만 두

개가 다르다. 주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Prince Ye Museum에 있는 편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침략 시기에 판들을 궁궐의 연꽃 연못에 가라앉혀 보호했다고 한다. 끝이 뿔로 된 나무망치로 때려서 소리를 낸다.

② 특경(特磬)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370년

편경과 유사한 나무 틀 안에 "경돌"로 된 판 한 개가 매달려 있다.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음악을 끝낼 때 사용된다.

다. 비단으로 만든 악기[38]

① 금(琴)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426년

줄받침대 없이 7개의 줄이 이어져 있으며,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한다. 중국의 유명한 Yumche Sillong이 만들었다.

② 당비파(唐琵琶)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114년

4개의 줄로 되어 있으며,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한다. 고대에는 작은 나무 술대를 사용했다. 3개의 골무를 낄 때도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에 한 개, 세 번째 손가락에 한 개, 네 번째 손가락에 한 개를 낀다. 악기의 목이 위쪽으로 향한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③ 향비파(鄕琵琶)

한국 - AD 626년

5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술대로 뜯어서 연주한다. 목이 곧다.

④ 슬(瑟)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370년

25개의 줄받침대에 25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으며,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한다. Taiho Bokhi가 만들었다.

⑤ 현금(玄琴)

한국 - AD 426년

아마도 모든 한국 악기들 중 가장 높이 평가될 것이다. 흔히 거문고로 알려져 있다. 6개의 줄을 술대로 뜯어 연주한다. 종종 지판(指板)에 장식 그림이 있다. 유명한 한국 음악가 왕산악이 만들었으며, 중국 칠현금(七絃琴)과 닮았지만 순수한 한국 악기이다. 연주기법이 어려워서 거문고 연주자들은 관현악단에서 가장 존경 받는 구성원이다.

⑥ 가야금(伽倻琴)

한국 - AD 626년

중국 쟁(箏)을 본 떠 개작했다. 12개의 줄받침대(안축) 위로 12개 줄이 매어져 있다.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한다. 가야의 유명한 우륵이 만들었다.

⑦ 아쟁(牙箏)

한국 - AD 1390년

각기 별도의 줄받침대 위를 지나는 7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다.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로 줄을 그어서 연주한다. 나무 활에는 송진이 발라져 있으며 말충이 없다.

⑧ 대쟁(大箏)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114년

Mong Nyum이 만들었으며, 15개 줄을 손으로 뜯어서 연주한다.

⑨ 월금(月琴)

중국 - AD 426년, 한국 - AD 1436년

중국 Wonham이 만들었다. 4개의 현과 13개의 프렛이 있고, 몸체의 뒷면이 평평하다. 줄을 뜯기 위해 골무나 보호대를 낀다.

⑩ 해금(奚琴)

중국 - AD 826년, 한국 - AD 1114년

중국 해금과 약간 다르다. 한국 해금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들어서 연주하며, 왼쪽 무릎에 올려 놓는다. 활의 말충과 활대 사이로 현을 끼워 말충으로 된 활을 해금에 느슨하게 붙인다. 연주하는 동안, 지판은 오른쪽을 향한다.

라. 대나무로 만든 악기[39]

① 대금(大禁)

한국 - AD 262년

신라 신문왕이 만든 순수한 한국 악기로,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끝에서 1/3 거리에 갈대에서 얻은 만든 얇은 막으로 덮인 구멍이 한 개 있는데, 숨이 악기를 통과할 때 그 막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낸다.

② 당적(唐笛)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390년

중국의 Ak Choong이 만들었다. 수평으로 들고 연주하며 취구 옆에 6개의 구멍이 있다.

③ 중금(中琴)

한국 - AD 626년

중간 크기이며, 신라 신문왕이 만들었다.

④ 지(箎)

6개의 구멍이 있으며, 수평으로 들어서 분다. 밑받침으로 된 부는 꼭지쇠를 끝 부분에 끼운다.

⑤ 소(簫)

중국 - BC 2084년, 한국 - AD 1114년

서양의 “펜 플루트”와 유사하다. 설관(舌管)이 없이 입으로 부는 악기이다. 16개의 관이 있는데, 첫 번째와 16번째가 가장 길고, 8번째와 9번째가 가장 짧다. 음은 반음계이지만 서양식 반음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제향과 연향에서 사용된다.

⑥ 당피리(唐棄萊)

중국 - BC 64년, 한국 - AD 1390년

대나무로 만들며 8개의 구멍이 있다. 중국 쿠차에서 발명되었다. “당”은 통상적으로 중국을 의미한다. 부는 구멍은 서양의 오보에와 다소 유사하다. 궁중 음악과 민중 음악 모두에서 사용되었다. 뒤쪽에 있는 구멍이 앞쪽의 구멍보다 낮은 음을 낸다. 오직 이것이 다른 피리와 다른 점이다. 한국 관현악단의 피리는 서양 관현악단의 바이올린에 해당하며, 연주에 진정한 토대가 된다. 현악기는 관악기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관악기 연주자들이 잠깐 쉬는 동안 계속해서 연주한다.

⑦ 향피리(鄉來鍵)

한국 - BC 74년

노란색 대나무로 만들어지며 8개의 구멍이 있다. 뒤쪽의 구멍이 앞쪽의 구멍보다 높은 음을 낸다. 본래 복숭아 나무껍질로 만들어져 “도피 피리”라 불렸다. ‘도피’는 복숭아를 의미한다. 일본의 피리는 체리 나무껍질로 묶여 있다. ‘향’은 “시골” 또는 “고향”을 의미한다.

⑧ 세피리(細資藥)

가장 작은 향피리이다. ‘세’는 “가는” 또는 ‘작음’을 의미한다. 대나무로 만들며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궁중 및 민중 음악에 사용되며 순전히 갈대 악기이다.

⑨ 통소(洞簫)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436년

불면 진동하는 막으로 덮인 구멍이 있어 음색이 대금과 비슷하다. 세로로 불며, 6개의 지공이 있다. 2 옥타브 이상의 음을 낸다. 본래 티베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⑩ 단소(短簫)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813년

구멍을 덮는 막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통소와 상당히 유사하다. 세로로 불며, 5개의 지공이 있다.

⑪ 약(箛)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436년

3개의 구멍이 있으며, 세로로 분다. 매우 오래되었는데, 시왕(Shih King) 때 이 악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춤을 출 때 불지 않고 손에 들고 춘다. 고대 아악에서 만 연주된다.

⑫ 적(翟)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115년

작고 세로로 부는 악기이다.

마. 박으로 만든 악기[39]

① 생황(笙簧)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114년

이 소형 파이프 오르간은 숨을 내뿜고 빨아들임으로써 연주한다. 대통은 본래 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 17개의 관이 끼워져 있다. 중국 여성인 Yuwa가 처음 만들고 나중에 러시아로 전파되었는데 Kratzeuauer라는 덴마크 교수가 이 악기를 연구했다. 그는 이 악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오르간을 발명하여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음악원에 기증한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의 풍금, 아코디언,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중국 명칭은 “생(sheng)”이다. 한때 생황은 36개의 관을 가지고 높이가 약 1.2m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물었다. 긴 설관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설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 관현악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긴 설관이 사용되지 않는다.

바. 흙으로 만든 악기[40]

① 부(缶)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436년

점토를 향아리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것이다. 9갈래로 쪼개진 대나무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Gal Chun이 처음 만들었으며, 악학계범에 10개의 부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관현악단에서 사용되며 10개의 음을 낸다.

② 훈(埴)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114년

수(Soo)가 처음 발명했으며, 점토를 구워서 만든다. 앞쪽에 3개, 뒤쪽에 2개, 총 5개의 지공과 바람을 불어 넣은 취구가 1개 있다.

③ 나각(螺角)

중국, 한국 - AD 1370년

고려 공양왕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다.

사. 가죽으로 만든 악기[41]

① 건고(建鼓)

중국 - BC 2074년, 한국 - AD 1436년

세종대왕이 도입한 대형 북으로 하위 관현악단에서 사용된다. 옛날에는 궁중 음악에 사용되었다.

② 진고(晉鼓)

중국 - AD 1056년, 한국 - AD 1114년

이 조(Lee-jo)가 발명했다. 건고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화려하지 않다. 하위 관현악단에서 제례악에 사용된다.

③ 응고(應鼓)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436년

세종대왕이 도입했으며, 삭고, 건고와 함께 사용된다. 동쪽에 배치되며, 음악이 끝날 때 하나의 채로 친다. 궁중음악에서 하위 관현악단이 사용한다.

④ 삭고(朔鼓)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436년

하위 관현악단이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⑤ 중고(Tchungko)

중국 - AD 626년, 한국 - AD 1786년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케틀드럼이다.

⑥ 절고(節鼓)

중국 - AD 626년, 한국 - AD 1436년

세종대왕이 도입했으며, 상위 관현악단에서 사용된다. 상자모양의 받침대 위에 놓는다. 주나라에서 유래했다.

⑦ 교방고(敎坊鼓)

한국 - AD 1436년

네 발로 된 나무틀은 폭이 약 82cm이다. 속악에 사용된다.

⑧ 좌고(坐鼓)

한국 - BC 74년

삼한시대부터 사용된 고대 북으로, 나무로 된 틀에 매달아 사용한다.

⑨ 용고(龍鼓)

중국 - BC 2074년

서양의 트랩 드럼처럼 2개의 채로 친다. 군악에 사용된다.

⑩ 장고(杖鼓)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114년

연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이다. 한쪽 끝은 왼손바닥으로 치고 다른 쪽 끝은 오른손에 든 채로 친다.

⑪ 갈고(羯鼓)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436년

장고와 유사하지만 손바닥은 사용하지 않고 양손에 든 채로 친다.

⑫ 뇌고(雷鼓)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456년

신에 대한 제례에 사용된다. '뇌'는 "천둥"을 의미한다. 나무 틀에 걸려 있다.

⑬ 영고(靈鼓)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436년

지신(地神)에 대한 제례에 사용된다.

⑭ 노고(路鼓)

중국 - BC 74년, 한국 - AD 1436년

사람의 영혼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된다.

⑮ 뇌도(雷鼗)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436년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음악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된다. 작은 북들을 91.4cm의 긴 나무 자루에 매달고 북통 양쪽에 끈을 달아 놓는다. 나무 자루를 흔들면 끈들이 북을 친다.

⑯ 영도(靈鼗)

중국 - BC 976년, 한국 - AD 1436년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북으로, 뇌도와 유사하다.

⑰ 노도(路鼗)

중국 - BC 974년, 한국 - AD 1436년

인간의 영혼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북으로, 뇌도와 유사하다.

아. 나무로 만든 악기[40]

① 박(拍)

중국 - AD 426년, 한국 - AD 1146년

집힌 부채 모양이며, Song Sum이 발명했다. 길이 약 35cm, 폭이 약 7.8cm인 나무조각 6개의 아래쪽 끝을 명주끈으로 느슨하게 엮어서 만들었다. 각 나무조각은 묶이지 않은 쪽 끝이 묶인 쪽보다 더 두껍다. 연주할 때는 2개 손이 사용되며,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

릴 때 사용된다.

② 축(祝)

중국 - BC 2074, 한국 - AD 1436

육면체 나무 상자의 윗면에 구멍을 뚫고 방망이를 넣어 친다. 한국의 축은 뚜껑이 있는 반면, 중국의 축은 뚜껑이 없다. 고대 아악, 제례 및 연회 음악에 사용된다.

③ 어(梧)

중국, 한국 - AD 1436년

육면체 나무 받침 위에 나무로 엮드린 호랑이 모양을 조각했다. 등에 달린 27개의 굽은 톱날을 대나무를 갈라 만든 솔로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쓸어 소리를 낸다. 관현악단에서 음악이 끝나는 신호로 사용된다.

④ 태평소(太平簫)

중국, 한국

몸통은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고 취구 부분에 황동으로 만든 동구(銅口)가 덧대어 있다. 순수한 갈대 악기이며, 군 행진 및 연회에 사용된다.

V. 결론

J.L.Boots는 1940년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어로 「한국의 악기 및 음악 소개(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를 집필하여 세계에 소개하였다. 영어로 고조선부터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는 한국음악의 역사 및 악기를 소개한 서양인은 처음이었고, 이 논문은 현재까지 한국음악계에 소개되지 않은 논문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서양인 쓴 한국의 전통음악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츠는 1921년 3월에 선교치과 의사로 한국에 왔으며, 1921년부터 1939년까지 세브란스 치과과장직을 맡으면서, 서양인 최초로 한국의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집필하였다.

부츠가 내한한 당시의 한국 상황은 일제식민지 시대로 한국음악계는 위축되고 전통적인 제향의식이 폐지되면서 전통음악회 연주 및 악시수가 줄고, 반면 서양음악은 급속도로 전파되는 시기였다. 부츠는 갑자기 도입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서양음악으로 인해 전통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전통음악 지식을 수집하고 집대성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마도 한국 전통음악계가 당시의 위축된 상황에서 기록하고 집대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부츠가 외국인이지만 기록의 필요성에 의해 한국전통음악을 이 논문을 통해 기록해놓으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겠다. 이 논문을 통해서 부츠는 한국음악사와 한국악기를 개괄적으로 서술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음악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삼국 이전 음악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은 일찍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고대 중국 문화에 관한 거의 모든 기록이 한국문화에 적용되며, 따라서 중국의 유교 즉, 오덕·오륜과 관련한 숫자 5와 한국의 음악이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삼국시대의 악기로 고구려의 거문고, 백제의 횡적·막목·공후, 신라의 대금·가야금이 있으며,

신라 때 경주의 성덕대왕신종과 음악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통일신라시기의 중국의 예술은 절정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백성들은 예술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당나라 이후의 중국음악은 유교사원 음악 이외에는 전해지지 않음으로, 오히려 한국이 중국 음악을 유지해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음악이 보존되어 옴으로써 중국에서 사라진 중국 예술의 진수를 한국음악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일본에 음악문화를 전수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한국 음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고려시대의 음악의 경우 예종 때 송나라 휘종이 전해준 악기와 악보를 소개하였고, 일본 동양문고 소장의 『교성승람(矯省勝覽)』에 옥피리 기록이 나온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국 음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태조는 음악을 육성했으며 궁중 음악가가 8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융성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세종실록에 음계를 토대로 음악편도 만들었고, 정대업, 보태평, 용비어천가를 짓는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박연은 악기 제작과 범패를 정립했으며, 아악과 당악을 발전시켰다. 세조는 정대업과 보태평을 개편했으며, 성종은 『악학궤범』의 편찬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남효온은 호무(胡舞)를 통해 국가 의례에 제즈 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박연이후 한국음악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1800년대의 명완벽은 아악의 전통을 고수하였고, 1900년대 초의 함화진은 국악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부츠가 이 논문을 집필한 일제강점기인 1939년의 한국 상황은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황국신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로 전통음악계가 위축되고 악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나, 한국 음악인들의 노력으로 전통음악이 보존되었으므로 부츠는 이 논문을 통하여 이를 축하하였다.

한국의 악기에 대해서는 부츠는 이왕직악부의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악기는 8가지의 재료 즉 금속(金), 돌(石), 비단(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의 분류가 있고, 타악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순이라고 하였다. 악기 설명에 관해서는 당시 이왕직악부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악기자체의 설명은 현재와 큰 차이점은 없으나 악기의 사용 및 연대에 있어서는 부츠가 인용자료를 서술하지도 않았고, 연도도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부츠의 악기설명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당시 한국의 악기를 영어로 소개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부츠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음악계가 미처 연구하지 못하거나 음악사에 기술하지 못한 점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음악사에서 중국음악에 대한 논의는 신라시대 이후이나, 부츠는 삼국이전의 음악과 중국음악과의 관계를 서술하여, 향후 한국음악계에서 삼국이전의 음악과 중국음악과의 관계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현재까지는 한국음악의 범주에 종, 탑 등의 명문이나 비문에 나온 글귀, 사진 등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음악계에서는 종, 탑에 나타난 악기그림 연구에 치중하는 편이나 향후 미술사 등 관련 학계에서 연구되는 내용 중 음악과의 관련이 있는 내용은 한국음악사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3. 한국음악은 중국음악과 관련이 깊고, 일본에도 전수하였다. 한중일 음악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성승람』과 같은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헌을 발굴하여 한중일 음악문화를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4. 남효온의 재즈댄스에 대해 한국음악계에선 오랑캐춤 호무정도로 소개되어 있으나, 부츠는 이 재즈댄스를 댄스의 고향인 미국과 연관시키고 있다. 과연 이 호무가 미국 뉴올리언즈 등에서 연주되는 재즈댄스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부츠의 한국악기 설명은 이왕직악부 자료를 근거로 했지만, 악기 연도 등에서 현재 한국의 악기 설명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부츠는 악기 연도 기술시 1114년, 1370년, 1436년 등 동일연도가 자주 반복되고, 정확한 출처를 명기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긴 하나, 아직 한국음악계에서 연도가 밝혀지지 않은 악기들도 부츠는 연도를 기술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이므로 한국음악계에서 악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음악은 그 나라의 정치, 민족, 사상 등을 말해주므로, 음악계에서 걸로 드러나는 악기, 연주자, 음악형태 등의 연구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미술 등 관련 학문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현대의 연구자들은 과거의 음악을 기록, 연구, 집대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과거음악을 고증하는 작업보다는 접근과 연구가 비교적 수월한 근현대 음악을 더 많이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인인 부츠가 한국의 음악사와 악기를 기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과 같이 한국음악계에서도 삼국이전부터의 음악을 깊이 연구하여 한국의 빛나는 음악문화를 세계에 보여주고 한국민이 문화민족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부츠의 한국음악 연구를 통한 향후 한국 음악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연구를 통하여 서양인 파이오니아를 통한 외부자적 시각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내부자인 한국 음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1]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X』, pp.1-32, 1940.
- [2]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4.
- [3] J.L.Boots, 'Korean weapons and armor',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III』 part II, pp.1-37, 1934.
- [4] 대한기독교서회,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7, p.66, 1921.
- [5] 이한수, 「John L.Boots의 履歷」,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7권 1호, p.55, 1998.

- [6] 장사훈, 『증보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pp.482-283, 1994.
- [7]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1-4.
- [8] 김영운, 「한국음악사학의 연구성과와 과제:고대음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음악사학보』 제30집, 한국음악사학회, pp.9-40, 2003.
- [9] 한홍섭, 『韓國音樂哲學의 研究 現況과 그 展望』, 『한국음악사학보』 제36집, 한국음악사학회, pp.53-83, 2006.
- [10]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5-6.
- [11]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6-7.
- [12]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7.
- [13] 장사훈, 『증보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pp.121-128, 1994.
- [14]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8.
- [15]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9.
- [16] 이석형, '鷄林玉笛', 『楊軒集』上
- [17] '漢城府',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권
- [18]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0.
- [19]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1.
- [20]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2.
- [21]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p.837, 1984.
- [22] 이지양, 「17세기 조선의 한문학에 나타난 음악과 무용 풍속-別曲, 胡舞, 項莊舞를 중심으로-」, 『한문학보』17권0호, 우리한문학회, pp.81-110, 2007.
- [23]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3.
- [24]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13-14.
- [25]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pp.510-512, 2015.
- [26]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4.
- [27] Gale, J.S.,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7.
- [28]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5.
- [29]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6.
- [30]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7.
- [31]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8.
- [32]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19.
- [33] 장사훈, 『한국악기대관』, 한국국악학회, p.107, 1976.
- [34] 한국학중앙연구원, 「특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35] 장사훈, 『한국악기대관』, p.101.
- [36]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21-22.
- [37]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23.
- [38]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23-25.
- [39]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p.25-27.
- [40]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28.
- [41]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p.29.

저자 소개

● 정 경 란(Kyung Rhan Chung) 정희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국악과(학사)
- 1998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문학석사)
- 2011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문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한국 음악학, 지역문화 및 전통식품 콘텐츠개발